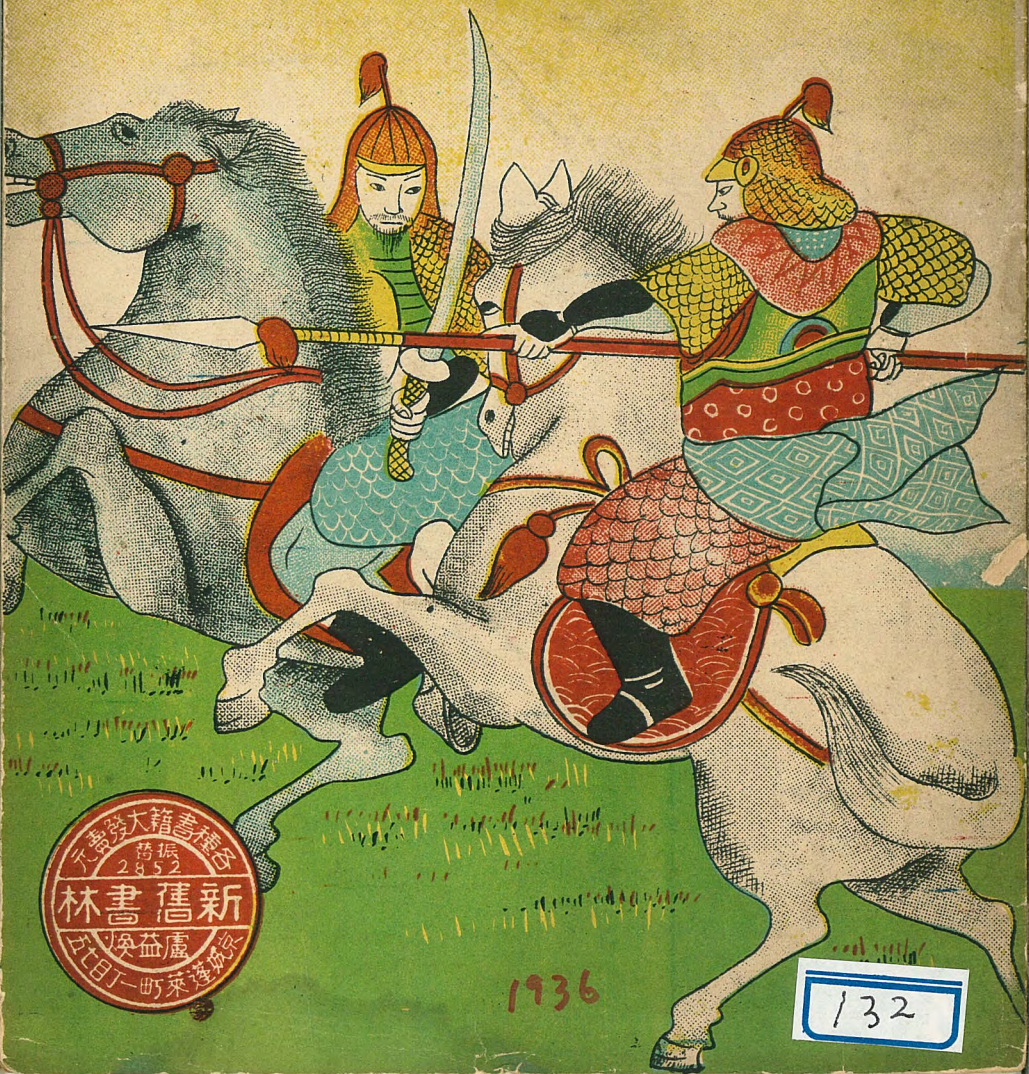


將名辰壬

金應瑞實記

김응서실기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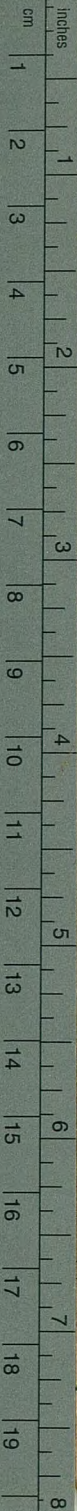
132

김응서실기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名將 金 廉 孫 等

1 1 1 1 1
 김 서 실 과 1
 평안도(平安道) 룡강(龍岡) 땅에 장사가 낫다고 한동안씨들은 그 장사가 곳
 김응서(金應瑞) 었다 한양건천동(漢陽乾川洞)에는 리순신(李舜臣) 이라고 전
 라도(全羅道) 광주(光州)에는 김덕령(金德齡) 이라고 하든 그 무렵에 김응서
 도 장사라고 썬드러다 한때의 장사가 나면 나라의 간성(干城) 으로 쓰이는 것이
 연만 리시의 조선은 그저 어느 때나 태평성대(泰平聖代) 인 사담에 자사라는
 것을 상서롭지 않게 녀인다 세조(世祖) 때에 리장옥(李澄玉) 이나서 오국성(五
 國城) 을 차지하고 관원을 학살하고 명종(明宗) 때에 림거정(林巨正) 이나서
 구월산(九月山) 속에 드러가 화적(火賊) 을 썬민뒤로 조선은 어딴서 장사가 낫
 다하면 그저 맹수(猛獸) 나독사(毒蛇) 가 나선 것갓치 무서하고 시려하는 버릇
 이 선조시대 에 와서는 더 심하얏다 비결(秘訣) 로 조선의 왕도(王都) 를 암
 시(暗示) 하야 노얏다는 정감록(鄭鑑錄) 에 한양리시(漢陽李氏) 의 도읍은 이
 백년이면 뜻이나고 왕기(王氣) 가 계룡산(鷄龍山) 정시(鄭氏) 게로 음긴 다한
 것이 선조시대가 이 백년이 알듯한 때이라 어딴서 별똥 하나만 크게 썬려저도
 활을 메여 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하는 소문이 퍼지고 가물어서 물이 자저

도 청천강(淸川江)물이 말렸다고야 단이고 상류(上流)에서 비가와 흙탕물
 만나려와도 한강(漢江)물이 피뵈었다고 써드는판이다 신선되야간 정희량
 (鄭希亮)이 공중에서 무슨말을의쳤다는등 화담선생(花潭先生) 서경덕(徐敬
 德)의말이 었지하얏다는등 토정(土亭)이엇지구 남사고(南師古)가엇지구 정
 북창(鄭北窓)이엇지구 해가며 세상이뒤셔드는것이 모다 란리난다는말이
 었는데 이러케 입에서나는란리는 한갓 계룡산에서 정시가나온다는란리
 었다 지각잇는 리를곡(李栗谷)갓흔이가 국내에군비(軍備)를 확장할필요
 가있다고 말할나치면 와하고이러서서 태평성대에 군사가당하냐고 휘방을
 치고 북방에서 노략질토나서는 호병(胡兵)의셔나 막어내면 그만이다하
 야 북도의육진(六鎭)을 태산(泰山)갓치밧고 남북병사(南北兵使)나 른
 한사람으로 하나씩골나보내면 조선안이안옥하야 그저어디서 장사도나지
 말고 인재도나지말고 세상이 요만하고지나가게 계룡산도 잠자코잇스라고
 축원하는것이 조정의대신의무리엿다
 그러나 세상이란 어느셔나 썩그대로만 붓잡혀잇는것이아니여서 계룡산
 만처다모든 조선대신들의눈은 다시 부산(釜山)을내다보지아니할수업시되얏
 다 선조(宣祖)이십년정해(丁亥)에 일본사신 울강광(楡康廣)이 단여드러
 간뒤로 조선에는 다시 일본관백(關白)수길(秀吉)의소문이 퍼져서

「일본의큰란리를 수길이 돌세(暮年)만에 평정하고 명나라를 쳐려드러
 간다고 조선에서 길을빌녀달난다지……명나라와조선과는분야(分野)갓
 터서 운수가갓치가니샤……명나라가란리를 만나게되면 조선도란리가날
 것이다……명나라친다고서 조선을치라는것이 지 무얼」
 이러한말이 서울재상의집사랑에서부터 시골구석의 농군들이모혀 신삼는
 방까지 이약이셔리가되얏다 이듬해에 일본사신이 또나와서 해를뚫어가
 며 대신들과 승강을하드니 조선에서도 일본으로 사신이드러가게되야 상
 사(上使)며 부사(副使)며 종사관(從事官)이며 수십인의사신해차가 썰나
 드러갓다 조선에서드러간사신행차가 이듬해봄에나오드니만 부산서 란리
 가쳐드러온다고 벽석들이다 서울서는 벌써 군사를썩고 한머리로는 군
 괴를치이고한다고 소문이왜자하드니또 엿더케드르면 팬찬케되야 서울소
 식이 잠잠하다한다

▲ 조선의상부사가 일본을단여나온뒤로 조선안에 란리소동이 이러났다가가
 러안졌다가 하게된그리유는 일본에드러간 상사 황윤길(黃允吉)이 문져
 나와서 왕께말하기를 일본관백수길의서드는품이 정녕코 조선을치겟다하
 야 조선안의군비단속을하든것이 나중나온 부사김성일(金誠一)의말은 수

김이 조선을 친다는 것은 헛장담이라 하여 조정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단속하든군비를 파의 친일이다 왕은 상부사의 말이 어지간찬케 틀니는 것이 괴상하야 다사 상부사를 불너드려 면질(面質) 하다 심피 몬저 황윤길에게 『대체 수길의 자격이 엇더하든고』

하고 무르니

『신수(身首)는 초라하나 별갓치반작이는 눈이 병란을이룩기 고야 말것임 니다』

하고 황윤길이 대답하는데

『저런 수길의 눈이 쥐눈(鼠目) 갓치 사막어리더구멘 별갓치반작이다 하오』 하고 김성일은 수길의 자격을 우습기도 안케말한다 왕은 누구의 말이 올흔 지 종을잡을수가 업서서 그만 이일을 재신(宰臣)들이 핵변하라고 비변사(備邊司)로 미러맛기였다 이날 비변사빈청(賓廳)에 모힌 재신들은 다만 김황두사람이 수길을 감정(鑑定)한것을가지고 가타부타를결정하게된일이라 을타는사람이 만은편으로 일이기우러지게되는데 대개는 일이어시 태평을누 리자는사람들이 모인터이라 여러사람의마음에는 김성일의말이 구수한데다가 또한가지 리유가 붙는것은 김성일은 사성(司成)이니 문관(文官)이오 편색(偏色)은 동인(東人)이였고 황윤길은 첨지(僉知)니 무관(武官)이오 편

색은서인(西人)이여서 마참내 황윤길의말은처지고 김성일의말이 올너섯다

『그러면그런치 무관의안목으로 사람을알아보나』

하는것은 문무의편으로 황윤길을 넘보는말이오

『학봉(鶴峯)이 범연이보앗스리라고 저희들삼냥에 육이면되나』

하는것은 봉당(朋黨)의편으로 김성일을 두던하는말이였다 이리하여 병

란이 눈압해닥쳐온것을보는듯이 알고잇는 황윤길의편에서는 황윤길을싸

라 일본에드러갓든 황윤길의일이가되는 화진(黃進)이갓든사람은 자기집안

에 종회(宗會)하든날 술쌈에 주먹을내두르며

『이놈 나라일을그릇치는 김성일을 쫓차가 주먹으로싸려죽이고 대전

(大殿)에 소장(疏章)을올녀 군사를준비하야갓다』

고 주정을하얏다 그러나 이러한주정은 무관의 우직(愚直)한행동이라고

착은착은 권세를취여잡은 문관들에게 조소만발을썩이고 일은일대로틀니

여서 각영문에 들추어내엿든 군안(軍案)은 도로 책장을덥뻗다

이런지 일년이채못가서 남도로동한 봉화탁(烽臺)에는 셋, 넷, 하고 봉

화스불이 작구늘드니 부산첨사(釜山僉使)의장계(狀啓)가 올너왔는데 절

영도(絶影島)에서 내다보면 일본병선이 새사마케 바다를덥퍼드러오는데

그수효를 알수업슬만치만타하드니 뒤밧치 경상감사(慶尙監司)의장계에는 임진(壬辰) 사월열사흔날(四月十三日) 새벽에 일본병선이 부산에상륙하야 첨사정말(鄭撥)이싸오다 전망(戰亡)하얏다하고 또 그이튼날장계에는 동래(東萊)가함락되고 부사(府使)송상현(宋象賢)이 전망하얏다한다 일일이쓰되니 령남(嶺南)의큰길가에서사는사람들은 말할것도업고 작은길거리에서 드러다보이는동네에서사지 보심을싸들고 어린애를업고 궁벽한동내로 김흔산속으로 몰니여드러가는 소동이이러나고 서울서는 조정에서 장수를뽑아 불이야살이야 남도(南道)로나려보내는데 북병사리일(李鎰)이 순변사(巡邊使)가되야 가운데길로나려가고 성응길(成應吉)이 좌방어사(左防禦使)가되야 외인편길로나려가고 조경(趙敬)이 우방어사가되야 오른편

길로나려가고 조방장(助防將) 변괴(邊塊)는 조령(鳥嶺)을지히게되고 조방장류극량(劉克良)은 죽령(竹嶺)을지히게되고 변응성(邊應星)은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떠나고 김수(金睟)는 경상감사로 윤선각(尹先覺)은 충청감사로 김여문(金汝吻)은 종사관으로 신립을따라나려가고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리순신(李舜臣)은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이직(移職)이되고 류성룡(柳成龍)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김응남(金應南)은 부사(副使)로출

전장수를 지휘하게되얏다

부산동래를함락한일본군사는 세길(三路)로난우어 가등청정(加藤清正)의군

사는 울산병영(蔚山兵營)으로 경주를지나 룡궁하(龍宮河)를건너 죽령으

로넘어오는 동편길로올너오고 흑전장정(黑田長政)의군사는 김해(金海)에

서 성주(星州)를지나 지례(知禮) 김산(金山)을거처 추풍령(秋風嶺)으로

넘어오는 서편길로올너오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의군사는 량산(梁山)말양

(密陽)으로 대구(大邱)를지나 상주(尙州)를거처 조령으로넘어오는 북관

길로올너오게되얏다 령남의수령들은 불시로 민병(民兵)을모집하야 대항

한다는것이 날카로운일본군사압페 명석마리가되야서 소서행장의군사가 문

저상주에이르렀다 상주는 순변사리일의군사가 직히엿스니 북도의명장으

로 일흔을날니든리일의군사압페는 일본군사도 겁을내여 선진이나가지못

하고 나무숨속으로드러가 숨는다 첨에 리일이 가운데길목으로나서서 상

주에나려오니 상주목사(牧使)김해(金海)는 겁을내여 산속으로드러가 숨

어잇고 판관(判官)권길(權吉)이 혼자성을지키는데 군사가몇명못되고 군

률(軍律)이문란하야 리일은 권길을 군률로다사라라하니 권길은 군사들더

모집할터이니 용서하라고애걸하야 리일의승락이떠러지니 권길은 밤새도록

촌으로도라단니며 군사를모집한것이 겨우 수백명의농군들이다 리일이상

주에서 하로를 묵는 동안에 창고고를 열고 곡식을 허더 백성에 끼난우어 주고
 피란간백성을 불러드리니 당일에 모아든백성이 수백명이되야 리일은 권
 길의모집한군사와합하여 부대(部隊)를조직하니 군사수효가 그렇저렇 근
 천명(近千名)이다 리일이 군사를물고 북문밖그로나가 내물가에서 산을의
 지하고 진천뒤에 리일은 갈옷을입고 말등에올너안져 대장기(大將旗)및
 테나서니 종사관(從事官) 윤섬(尹暹)과 박호(朴虎)이며 판관권길이며 사
 근찰방(沙斤察訪) 김종무(金宗武)의무리가 차례로 리일의뒤에서 말메나려
 느러섰다 엇저녀부터 개녕(開寧)길목으로 일본군사가 드러온다는말이잇
 서서 군감(軍監)한사람을 내여노아 개녕길목으로나가 알려보라하얏드니 군
 감이나서서 얼마안나가서 나무숨속에서 조총(鳥銃)소리가터지며 군감이
 말메서떠러진다 리일은 그제야 나무숨속에 복병(伏兵)이잇는것을알고 군
 사를지휘하여 싸움을독촉하니 숨속에서나오는 일본군사의수효가 수만명
 이됨으로 리일의군사가패하고 리일은 혼몸(單身)으로 버서나서 말도업
 사 문경(聞慶)으로다라났다

상주에서 리일의군사가패하니 일본군사는 곳장 조령을넘게되얏다 순변
 자신훈은 지방으로나려오며 모집한군사들이설고 충주(忠州)로드러가잇

다가 상주에서 리일의군사가싸혼다는소식을듣고 신훈이 상주로가랴하여 군
 사를거나리고 조령에이르니 상주에서 리일의군사가 이의 패하얏다한다 신훈
 림은 길음을돌니여 충주로나오랴하니 종사관김여문의말이 충주로물너갈것이
 아니라 조령을지히자하는 것을 신훈은

「아니오 일본군사는 보병(歩兵)이오 우리군사는 기병(騎兵)인즉 기병
 이 좁은산골에서싸와서는 힘쓸수가업스니 충주로물너가 널은들판에서
 싸와야하오」

하고 충주로나와서 달천강(澗川江)을뒤에두고 배수진(背水陣)을쳤다 일
 본군사는 조령밋헤이르러 아모리보아도 조령갯흔관문(關門)에 직히는군
 사가 업지안으리라하여 조령밋헤서 사흘을류하는동안에 동편길로올너오
 든 가등청정의군사가 닥치였다——혹은가등청정의군사는 죽령으로넘
 었다한다——두패의군사가한데뭉쳐 조령을쳐다보며 다시 하로를류하드
 니 이른날아침에 가등청정이

「넘려말고 오늘은 조령을넘자」
 하는 령을나린다

『넌려얏다니요』

하고 부하들이 의심하는데 청정은

「내 엿저녁에보니 가마귀나 솔개들이 조령을서슴지안코 넘어오드니
오늘아침에도 또 가마귀 솔개들이 서슴지안코넘어가니 조령에직히는군
사가잇스면 새들이 고이넘지알을것이다」

하고 옥여서 일본군사가 차례로 향렬을지여 조령으로올너오며 천문을
열고보아도 관문이비엿고 돌재문을열어도 관문이비엿고 세재문도비여서
괴탄업시 일본군사가 조령을넘어섯다 조령을넘어선일본군사는 단월역(丹
月驛)에서 진세를정돈하야가지고 다시 길을갈나 하패는 충주성으로향하고
한패는 달천강물을싸라가고 한패는 산을제고도라서 동편상류(上流)에서
강을건너서니 신립의군사는 삼면(三面)으로군사를밧고 뒤으로강물이막혀
죽기를한하고 싸호는수밧게는 다른일이업섯다 신립의군사팔천(八千)은모
다괴병이라 말쑥소리가늘은들판을울니며 동으로서으로 또남으로쫓쳐나가
서 조령서넘어온보병을 할부루못지를때에는 사월시무남세 기나긴해가넘
어가서 달천강의물밧도 어숨푸레한 초저녁그늘에 잠기였다 사면에서누
러케익은보리이삭이 피뵈헤붉어진것도 분간할추업는밤이들며 신립의괴병
은 몰니기시작하야 거의전부가 달천강물로 쓸녀드러잔다 종사관김여문
이 형세위급함을보고 부하의남은군사를 이슬고내다러 격렬이싸호다가김
여문도 강물로뛰여든다 신변이외롭게된신립은 독불장군(獨不將軍)으로훈

자나서서 싸호다가 탄금대(彈琴臺)위로올너가 활을쏘아 대적하드니 활
살이떠러진뒤에 신립도 강물에 몸을던지였다



탄금대싸움에 신립의패보(敗報)가 조정에이르니 서울이위태할것은 눈압
헤당한일이라 왕은 과천(播遷)하기로결정하고 광해군(光海君)으로 세자
(世子)를책봉(冊封)하야 군국대사(軍國大事)를맡게하고 남삼도의군사를볼
너 서울을직히기로하고 일변으로 리조판서(吏曹判書) 리원익(李元翼)을
평안도순찰사(巡察使)로보내고 최흥원(崔興源)으로 황해(黃海)경희(京畿)
두도의 순찰사를겸임(兼任)하게하고 왕자(王子) 림해군(臨海軍)은 함경도
(咸鏡道)로보내고 순화군(順化君)은 강원도(江原道)로보내여 근왕병(勤
王兵)을모집하게하고 금음날(晦日)새벽녘에 왕의대가가 서도(西道)로떠
나는데 왕이 친히 채썩을들고 말게오르고 왕비(王妃)는 거러서 인화문
(仁和門)을나오게되얏다 대가뒤에는 세자와 왕자신성군(信成君)정원군(定
遠君)이따루고 도승지(都承旨)리항복(李恒福)이하 호종대신(扈從大臣)백여
인이 향렬을지여나섯다 왕의대가(大駕)가 문안에서떠날때에 비가오기시
작한것이 모래재(沙峴)를넘을때는 큰비가퍼부어서 왕의일행은 비를노략
이로마지며 동파관(東坡館)까지나와서 대가를머르고 대신 리산해(李山

海) 류성룡(柳成龍)의 무리를 불러 대가의 주필(駐驛)할 곳을 무르니 리항복의 말에는 의주(義州)로 가서 주필하였다가 형세가 부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명나라로 드러가는 것이 옳다 하고 윤두수(尹斗壽)의 말에는 북도(北道)는 군사가 강하고 산이 험하여 외란(外亂)이 드러오지 못할 것이니 북도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류성룡은 두 사람의 말을 모다 배척하였다 일본군사가 서울을 드러서면 북도라고 아니갈리가 업고 또는 대가가 한겨름만 조선땅을 떠나면 조선은 왕의 소유(所有)가 아니라 고 말한 뒤에 왕의 압해물너나서 리항복을 보고

『엇지하여 대가가 압록강을 건너 선다는 말을 경솔이 입밖내인단 말시오 만약 이 말이 퍼지면 조선안의 소동이 이러나서 자중지란이 이러나면 뉘 힘으로 수습할터이오』

하고 책망하니 리항복이 깨닫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사과하였다 이날 호종대신들은 대개 윤두수의 말을 조차라 하니 호종대신들이 서울서 떠날 때에 자의가 속을 모다 북도로 피란을 보낸 터이라 왕을 모시고 북도로 드러가면 자네가 속을 모아 드러 왕을 모시고 북도에서 한갓 지내라 함이다 하기는 류성룡의 가속도 북도로 보내었스나 다른 사람의 무리와 갖치 가속을 생각지 안코 조선이라는 큰 집을 위하여야 대가의 북도파천을 못하게 한 것이다

왕의 대가가 개성(開城)에 이르러 이들을 류하는 동안에 왕은 개성의 부모(父老)를 남문루(南門樓)위로 모아 왕이 친이 위로 하고 각기 품은 소회를 숨김 업시 말하라 하니 부모들의 말이

『왕께서 숙원(淑媛) 김씨(金氏)를 과도이 사랑하여 국척(國賊) 김공량(金公亮)이 대신리 산해가튼 무리와 부동하여 안팎으로 정사를 그릇치는 사담에 백성들이 분하여 외란을 이룩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는 말이 일치하고 또 후은

『전정승(前政承) 정철(鄭澈)을 불러드려야 란리가 가라안 줄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 왕은 즉시 정철을 적소(謫所)에서 불러 올니고 리산해의령의정(領議政)을 류성룡에게로 옮기고 최흥원(崔興源)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윤두수를 좌의정으로 정하였드니 대간(臺諫)들이 이러나서 류성룡을 탄핵(彈劾)하여 다사 최흥원으로 령의정을 삼고 유홍(兪泓)으로 우의정을 삼고 일변으로 의병(義兵)을 이룩기라는 애등조(哀痛詔)를 팔도(八道)에 나리였다

왕의 대가가 개성서 떠나 평양으로 향하고 김교역(金郊驛)에 이르니 이날 일본군사가 서울을 범하였다 한다 충주서 떠난 일본군사는 또다시 두 패로 갈니 여 한패는 러주(驪州)로부터 양근릉진(楊根龍津)을 건너 동대문에 와서 수

구문(水口門)으로 드러오고 한패는 죽산(竹山)으로 나서서 룡인(龍仁)을 자
 나 한강(漢江)을 건느게 되는데 한강을 지키는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
 元)이 군사를 패하고 립진(臨津)으로 쫓겨와서 한강을 실수(失守)한 죄로 벌
 을 내려달라고 왕께 제청(啓請)하였다 왕은 김명원에게 립진을 막는 공으
 로 한강의 실수한 죄를 속(續)하기로 하여 김명원으로 립진을 지키게 하고 대가
 가 평양에 드러온 뒤에 다시 한응인(韓應寅)으로 제도순찰사(諸道巡察使)
 를 제수(除授)하여 먼저 립진을 막되 도원수의 절제(節制)를 받지 말나 하얏다

김 응 서 실 기

왕의 대가가 평양에 이르기 전에 리원익이 평안도순찰사로 나려와 도내의 인
 심을 수습하고 일변으로는 도내의 군비(軍備)를 단속할 때에 병사(兵使) 리덕
 윤(李德潤)은 대동강(大同江)을 지키게 되고 방어사(防禦使) 김응서는 지방
 의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사는 왕의 대가를 쫓차 서도
 로 향하고 오는 길에 립진에서 배스길이 신치니 일본군사는 맘편하게 립진
 강가에 초막(草幕)을 치고 밥지여먹어가며 누러붓는다 립진을 지키는 장수
 는 한강에서 실패한 도원수 김명원을 비롯하여 죽령서패한 류극량 조령서패
 한 변기의 무리와 수어사(守禦使) 신할(申喆)이며 순변사 리빈(李贇)이며 경
 기감사(京畿監司) 권중(權徵)이며 리각(李珪) 리천(李薦)의 무리였는데 그중

김 응 서 실 기

에 성미가 팔々한 신할이 갖든 장수는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강을 건너가 일본
 군사를 치자 하얏스나 그러지 말고 직히 가나든 이 하자하는 도원수 김명원의
 말에 놀리어 팔구일(八九日)을 쓰러오드니 하로는 강 건너 일본군사들이 흘
 제 초막에다 불을 질너 태우고 군기군량(軍器軍糧)을 쓸고 다라난다 신할이
 일본군사의 다라남을 보고 강을 건너라고 서드는 것을 도원수 김명원이
 『사닭업시 다라나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니 쫓지 못한다』
 하고 허락지안는데 류극량이 또 나서서

『공연이 다라나는 군사를 쫓다가는 복병(伏兵)을 만나는 법이여』
 하고 만류하니 신할은 도원수 김명원 부림이 패군장수이라 하여 도원수의 명
 령을 하치안케 녀기는 판에 또 패군 류극량이 나서서 도원수의 편을 드는 게 비
 위에 틀려서

『저러니 패군을 아니 할수 있나 다라나는 군사를 쫓씨가 겁날게 무에야 만약
 나서지안는 자는 군률로 목을 베힌다』

하고 신할이 서두르니 류극량은 신할에게 오금박히는 것이 분하여
 『그만두어라 내가 총각(總角)때부터 종군(從軍)을 하얏다 마는 죽을 것을
 겁내여 나서지 아니한 내가 아니다』

하고 류극량이 먼저 배를 싣너내여 군사를 싣고 압흘서나간다 이때 마침

평양서떠나오는 제도순찰사한응인의군사가 드러와서 한응인도 강건너서
다라나는일본군사를 쫓츠라하는것을 김명원이

『체찰사의군사는 먼길을와서 아즉 다리도아니쉬고 곤한터에 군기도정
리를안해가지고 웬셈인지도모르게 다라나는군사를쫓다니오 후군(後軍)
도마저드러와서 하로밤쉬여가지고 래일 강건너동정을 보아서 조치하게
하오』

하고 만류하니 한응인은

『무슨일을 저러케 느러지게차리다가 패하지오』

하는핀잔을준다 더구나 도원수의절제를 아니맞는 한응인이 드러와서 도원수
의괴운을씩는것이 신할가튼장수에게는 괴운을도々아서 경외감사권중이도
군사를지휘하야 신할의뒤를싸라 강건너개하얏다 이리하야 강을건너선
군사들이 몬저건너온류극량을 선봉으로하고 서울길로쫓차올나가는데 심
리를못가서 산뒤에남작업디렸든 북병이이러나 길을막고 일시에 총질을
한다 선봉류극량은 뒤를도라보며

『신할은오지말고 군사를거두어 도로건너가거라』

하는소리를외치고 쌍에주저안져 활을쏘기시작하야 북병을막어내는데 신
할은 억지를부려 류극량의지휘를듯지안코 북병을대적하다가 신할도죽고

류극량도죽으니 장수를일흔군사들이 엇절줄을모르고 강가로몰려와서 미
처배를잡아타기전에 갈날이덜미를쳐서 전부가 강물로쓸녀드러갔다 저편
에서 건너다보는 한응인은 군사가참패되는것을보고 발을구르는판에 진중
에잇든 상산군(商山君)박충간(朴忠侃)이 말머리를돌녀다라나니 진중에서
는 박충간의다라나는것을보고

『도원수가 다라난다!』

하는소리가 일시에이러나며 군사가 와하고허러진다 도원수김명원은

『아니다!』

하는소리를 아모리질녀도 이의허러진군사를 다시 수습할수가업시되야 김
명원 한응인의무리가 괴를거두어가지고 평양으로도라갔다

김명원 한응인의무리가 림진에서 실패하고 평양으로드러간뒤로 평양행
재소에서는 명나라로 구원을청하기로 의론이도랐다 명나라로구원을청하자고
주장한사람은 리항복(李恒福)이였스나 구원청하는것을 반대하는사람이만
엇다 명나라에서 구원을보내줄는지도 모를일이오 보낸다하야도 요동(遼
東)의 마병(馬兵)을보낼터이니 요동의마병은 호달(胡撻)의종류이라 마병
이조선에나오면 그횡포(橫暴)를견대일수업슬터이니 차라리 마는것이 조

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항복(李德馨) 류성룡의 우수하면서 사람의 동의로
 왕세제청하고 김응남(金應南)을 명나라에 보내여 구원을 청하였드니 명나라
 에서는 조선이 일본의 선봉이 되야 명나라를 치러 드리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명
 나라 조정에서는 의혹이나니사 요동순안사(巡按使) 림세복(林世祿)을 조선
 에 보내여 조선내정(內情)을 알아나한다 명나라 사신 림세록이 평양에 이르러
 서 왕은 림세록을 대동관(大同館)으로 불러보고 조선의 내정을 자세히 말하
 야 보냈드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요진(遼鎭)에 명령하야 조선에 구원병을 보
 내라 하얏스나 요진에서는 의심이나서 송국신(宋國愼)을 다시 조선에 보
 내여 조선의 사정을 삼히고 일변으로는 유격장군(游擊將軍) 사유(史儒)와 참
 장(參將) 과몽중(郭夢徵)의 무리가 처명 썸되는 군사들거나리고 압록강을 건너
 와 조선안을 경계하다 조선서는 다시 신점(申點)이 명나라에 드러가 명
 나라 병무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에게 탄원을 하고 뒤를니여 류몽정(柳夢
 鼎) 이 드러가 구원을 청하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석성이 주장하야 조선에 구
 원병을 보내기로 하고 황응양(黃應陽)을 조선에 보내여 일본과 조선의 그동안
 관계된 국서(國書)를 갖다 보고는

『조선구원이 느졌다』

고 후회하며 일변 요동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을 명하야 요동군오천

(五千)을 거나리고 조선을 구원하게 되었다

림진강을 건너 선일본군사는 개성을 점령하고 황해일도에 퍼져 봉산(鳳山)에
 불을 지르고 연안(延安)을 치며 한삿치 대동강남안(南岸)에 다 었다 일본군
 사가 대동강을 범하니 왕은 평양을 썸나기로 내정(內定) 하얏스나 첫 로
 평양성안백성들이 왕의 대가를 노치 아니 하라하고 대신 류성룡 윤두수가 평
 양을 직히자 주장한다

『평양은 서울과 달나 서울은 백성들이 몬져 소동들이 뭇것스나 평양백
 성은 영악스럽고 단々 하야 능히 성을 직힐 것이오 성밖에는 대동강이 들
 니 강 건너 군사기 성을 범할 수 업는 터이니 명나라 구원병이 나노기 전에 성
 을 직히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은 평양을 썸나자하는 정철의 말이 뜻에 마저서 대
 가가 평양성을 나서니 왕의 일해이 모다 북도로 드러가라 하야 압서나가든내
 전(內殿)과 궁빈(宮嬪)의 행차를 북도로 인도 하얏다 류성룡이 대가를 썸라
 나와서

『대가가 북도로 드러간 뒤에 길이 막히면 조선안에 교통(交通)이 곤란할 것이
 니 차라리 서도로 파천하야 명나라와 교통을 끈치 말아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야 왕의대가만은 서도의녘변(寧邊)으로 향하였는데 북도로드러가는 내전일행은 중로(中路)에서 일본군사가 북도에드러가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돌녀 서도로드러왔다

류월열하로날(六月十一日) 왕의대가가 평양성을떠날때에 대신최홍원 유홍 정철의무리는 대가를호종(扈從)하고 좌의정윤두수 도원수김명원 순찰사리원익의무리가 평양성을지키는데 류성룡은 명나라장수가나오면 접대하기로 접빈사가되야 군사(軍事)에는 관계가업시 평성에잇섯다 대동강남안에이른 일본군사는 소서행장의군사였는데 강가에와서 류진한지사홀(三日)되든날 일본군사하나이 기다란대사비에 조희쪽뭇친것을들고 진밭게나와시 강가모래흙에 썬저노코드러간다 이날 류성룡이 련광정(練光亭)에잇다가 일본군사가 모래흙에 대사비썬진것을보고 화포장(火砲匠) 김생려(金生麗)를불녀서 『저건너모래흙에썬진 대사비에달닌 조희쪽을 썬여오겟느냐』 하고무르니 화포장은 『썬음지오』

선사대답하고 강으로나가드니 조그마한나루스배를 풀러내여라고 혼자

노를저어 강을건너가는데 일본군사가 손에잡은칼을바리고 모래흙에나와 배를기다리드니 김생려가 모래흙에배를대이니 일본군사 벌사 대사비에달녘든 조희쪽을썬여가지고와서 김생려를준다 그리하야 김생려가바더가지고온 조희쪽은 봉한서신(書信)인데 것봉(皮封)에

『레조판서리공각하(禮曹判書李公閣下)』 라고기록하였다 윤두수는 것봉을보고서

『썬여볼것업시 되보내자』 고 하는것을 류성룡이

『이왕 바더온것이니 썬여보면 상관잇소』

하고 서신을썬여보니 문저 통신사로 조선에드나들든 평조신(平調信)과현

소(玄蘇)가 리덕형에게한서신인데 그뜻은 서로만나서 강화를의론하자한

것이다 종의지의무리가 조선에나올때이면 레조에서대접한사담에 리덕형

이 레조판서로잇노라고 종의지무리와는 면분이두터워진터이다 서신을갓

다보고 아니갈수가업서서 리덕형이 종의지의무리를 만나보라하니 여러

사람의공론이 력사(力士)를다리고가서 만나볼때에 불공한말이잇거든 종

의지의무리를 사려죽이라한다 리덕형은 력사박성경(朴成景)의무리를 다리

고 적은배에올녀 대동강을건너가노라니 종의지의무리가 갓건너편에서마

조나와 중류(中流)에서 배를부리고 서로 만나는데 중의지의무리는 전
과갓튼태도로 술을내여 리덕형에게 권하며

『일본군사가 명나라에 드리갈길을 조선서 빌리지아니하면 조선이 혹독
한화를 당할것이다』

고말한다 리덕형은 술을빚더마시여

『강화를할바에는 군사를물니고하는법이니 먼저 군사를물니고 차々の론
하자』

하는말로 어물어물하니 평조신이

『일본군사는 나갈줄은알어도 물니갈줄은모른다』

고대답하야 서로만나본모람이업시 헤여지는데 박성경의무리가 평조신을
싸리라하는것을 리덕형이 눈씻을하야 고이도라왔다

이뒤로 일본군사는 대동강동안(東岸)으로진을음기고 평양성에는 김명원
리원의 류성룡의무리는 려광정(練光亭)을쓰고 감사송언신(宋言愼)은 대

동문루를지히고 병사리윤덕(李潤德)은 부벽루(浮碧樓)를지히고 자산군수
(慈山郡守)윤유준(尹裕俊)은 장경문(長慶門)을지히며 성안에잇는군사 삼

사천명은 차례로 성첩(城堞)을지히였는데 하로는 일본군사십여기(十餘騎)

가 양각도(羊角島)로나가서 강을건너다가 강물이 말배짜기에닫는데싸지와

서는 도로 도라서나가고 조총을메인한씨군사가 강가으로나서서 평양성을
향하고 총질을하니 탄환이 강을건너와 성안에도떨러지고 대동강기와쌍도

마춘다 성첩을지히는군사들이 편전(片鱗)을쏘와 대응하는것을 도원수김명
원이 사수(射手)를뽑아 배를타고 중류에나가 활을쏘라하였다 이리한일은

군사들의자란에 지나지못한일이라 려광정에모인장수들이 술상을드러노코서
로권하며 군사들의활쏘는것을 자미있게 바라보는데 류성룡이 도원수를보고

『아싸 양각도에서 일본군사가 물에들어서는것 보앗소』
하고 무르니 김명원은

『보앗소』
테사로대답하며 술잔을든다

『날이가물어서 강물이 나날이 주니 잘못하면 일본군사가 야튼목으로건
너오기가쉬운데 엇지자구 강물야튼목에 설비(設備)를아니하오』

하고 류성룡이 채쳐무르니 김명원은 눈이실죽해지며
『그런것은 병사더러 이르오』

하고 병사에게로 미룬다
『왜 도원수는 술자실겨를는잇서도 그런일에는 겨를이업서 못하오』

하고 류성룡이 오금을박으니 것례이든 병사리덕윤이 불안하든지
『네 명령만잇스면 하다뿐이오니자』
하고 도원수를쳐다보는데

『그만두고 병사가 나가보오그러』

하고 윤두수가 리덕윤에게말하야 리덕윤이 이르섯다 류성룡도 이려서나오며
『안되겟다 저—무능한도원수를 밋다가는 평양이 또 위태할것이니명나
라 구원병을 속히 나오게하는수밧게업다』

하고 류성룡은 곳 처소도로와 말을타고 급히모라 녘변으로가니 왕의대
가々 이의 녘변서 박천(博川)으로떠났다 류성룡은 줄곳 박천으로 달녀가
왕제회입고

『명나라소식이 잇슴닛가』

하고 무르니 왕은

『아죽업다』

대답하며 일변 평양에서 윤두수가보낸 서장(書狀)을쓰내여 손에떠들고류
성룡에게 보이며

『어제 평양서는 성안에잇는로약(老弱)을모다 성밧그로내여보냈다하니
그러면 평양성안에 소동아 이려났슬터이니 이일을 엇지면조흐나』

하고 못는다 류성룡은

『탈이올시다 날이감으러서 대동강물이줄어서 일본군사가 야든목으로 건
너을넘러가잇는것을 드원수가 무능하야 수상준비(水上準備)를아니하고잇
스니 마음늘수업는일이올시다』

하고 류성룡이대답하니 왕은

『돌이주는데야 준비를엇지하노』

하고 못는다

『그런데는 마름쇠(菱鐵)를 야든목으로싸릅니다』

하고 류성룡이대답하니 왕은 곳 지방관을불너

『이고을에 마름쇠가잇느냐』

고 무려서 지방관이

『잇슴이다』

대답하는데 왕은반겨하야 박천군기고(軍器庫)에장여둔 마름쇠수천개를 평
양으로보내게되얏다 류성룡은 다시 왕제아뢰기를

『평안도내에는 방어사김응서가 지방에서 군사를모집하는터이오니 시종
(侍從)하나를김응서에게로보내여 군사와군량을평양, 룡강, 증산(甑山), 함종
(咸從)등지(等地)로 모아 평양성에서 피란나오는백성을 위안하고 평양

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니 왕은

『누구를 보내야 될가?』

하고 못는다 류성룡은

『병조정랑(兵曹正郎) 리유정(李幼澄)이 적당하오이다』

하고 왕의압해서 물어나와 리유정을보고 김응서를 차저가보라말하니 리

유정은 삼작놀내며

『날더러 저굴에를 엇더케가라하오』

하고 눈을커다라케뜬다 류성룡은

『나라의록을먹는사람이 란시에 어렵다고 피하면 도리가무어요 나라일이

급한때에는 뜨거운물(湯火)이라도 피치못할터인데 방어사차저가는것이 어

려울것이 무어요』

하고 준절이썩지즈니 리유정은 다시 무어라고 말은못하나 종시 쓴입맛을

다신다 류성룡은 다시 명나라구원병을 속히불리게하라하는 왕의전교를받

고 총각이 행재소에서 썩나 대정강(大定江)가에이르니 해가 너웃너웃넘

어가는데 광통원(廣通院)널은들판에 낮군사(散卒)가 하나씩 들씩 쓴침업

시지나간다 류성룡이 평양서풍겨나오는군사이나 아닌가의 의심하야 군감(軍

監)두어사람을내어노아 사면의길목을밧고 지나가는군사 열아홉명을 거더

드러

『웬군사냐』

고 무르니 군사들의말이

『소인은 의주고을화포군이오 소인은 룡천(龍川)고을작대군이오』

하며 어티를가느라고 못는말에는

『평양대동강을 직히다가 체번(替番)이되야 가는길이오』

하고 침에는 모다 평양이실패하얏다는말은아니하다 류성룡이 다주쳐못

는동에

『어제 일본군사가 대동강야흔목으로 건너와서 병사가도망하얏슴으로 군

사가 모다 허터진사답에 저희도 고향으로도라가는길입니다』

하고 말한다 류성룡은놀나 일변 서장을써서 군감최윤원(崔允元)을시켜박

천행재소에보내고 밤을도아 가산(嘉山)으로드러가니 이날저녀에 북도로드

러가든 왕비의일행이 북도에도 일본군사가 가득드러차다는소식을듯고 길

을돌니여 가산으로드러와잇섯다 이튼날아침에 왕의대가가 평양의패보를받

고가산으로드러와서 왕비의일행과 왕의일행이 한데로모히게되얏다

김응서실귀

평양이 실패되기는 류석룡이 평양을 떠나든 이른날일이다. 일본장수 소서행장의 군사도 대동강남안에 이르러 강물을 건너 수습스니 짜 강가로도 여러저귀 초막을 짓고 심여곳에 둔취하야 여러날을 지나고 보니 경비(警備)가 자연 게을너졌다. 도원수 김명원이 일본군사의 경비가 게을너진 것을 보고 습격(襲擊)을 하라 하야 별장(別將) 고언백(高彦伯)의 무리를 불러

『오늘밤에 강을 건너 일본진을 습격하라』

명령하였다. 도원수의 명령을 바든 고언백의 무리는 이날 밤 삼경(三更)에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 련해 지체가 되야 겨우 새벽녘에 부벽루(浮碧樓) 밑에서 배를 푸러가지고 능라도(綾羅島)로 강을 건너가니 말서 날이 흰이 재였는데 일본군사는 아즉 이러나지 아니하였다. 고언백의 군사가 그중에 큰진하나를 쳐서 산백여필의 말을 빼아서 노으니 대장의 진에서 경종(警鐘) 치는 소리가 이러나며 여러진에서 군사가 이러나 고언백의 군사를 쫓아온다. 고언백의 군사는 습격을 나선길이라 더 짜홀것업서 도라서 강을 건너는데 일본군사가 급히 뒤를 쫓침으로 배가 쌀니 떠나는중에 군사 몇명이 미처 배를 못타고 처져있다. 그만 강물로 달녀들어 건너오는 것이 야든 목을 차져 작건너서니 일본군사들이 물속을 알고 이른날 새벽에 강건들 준비를 하야가지고 일시에 강물로 건너왔다. 평양성에서는 어제 고언백의 군사가 강물을 건너온뒤에 물속길이 드러나니 윤두수 김명원의 무리가 성문을 열어 노코 성안백성을 모다 성밖그로내여 보내고 군귀를 묵거 푸월루(風月樓) 못속에 처너코 윤두수 김명원의 무리는 보동문(普通門)으로나가 순안(順安)으로 다라나고 종사관 김신원(金信元)은 혼자 대동문(大同門)으로나가 배를 타고 가서(江西)로다라났다. 이리 하야 일본군사는 대동강을 건너선뒤에 힘을 것업서 평양을 점령하였다.

김응서실귀

왕의 일행은 박천서 다시 의주로가서 대가는 룡만관(龍灣館)에 주필하고 정곤수(鄭峴壽)를 명나라 조정에 보내엿드니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요동군(遼東軍) 오천(五千)을 거나린 조승훈(祖承訓)이나오니 조스훈은 요좌(遼左)의 맹장(猛將)이라 압록강을 건너 설씨에 일본군사가 짜호기도전에 다라날싸바 겁을내인터이라 가산에 이르니 군사를 쉬이고 술을마시다. 조선 접빈사에게 『평양에잇는 일본군사가 다라나지나 아니하얏소』

『잇소!』

하고 대답하니 조승훈이 돌연이 마시든 술잔을 놓피들고 입으로 무슨말을 중얼거린다. 접빈사들이 의심이나서 흥변에게 무르니 흥변의 말이 『일본군사가 평양성에서 다라나지안코 잇는것은 하늘이 자괴로 조선에

서 큰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말이라한다 류성룡 김명원의 무리가 명나라장수의 날뛰는 것이 마음에 짜
림하야

『요새 비가와서 길바닥이 미끄러우니 급히 서들지말고 군사를쉬이게하라』
하고 권하니 조승훈은

『요동마병압페는 길을가리는법이없다』

하고 장담을하며 나서는데 척후장(斥候將) 황경(黃瓊)이 쫓차드러와 보하
는말이 평양의일본군사가 서울로 모다 가고 몇명이없다한다 조승훈은

『그럴게다』

하고 락심(落心)을하며 급히서들어서 평양성밋테이르니 성문이 환하게열
니였다 조승훈은 평양성이 정녕코비인줄로밋고 이른날아침에 군사를거나
리고 보동문으로드러서서 선진(先陣)이 대동관에이를때에 좌우방벽(房壁)
틈에서 북병이이러나며 총소리가 쿵튀듯팍튀듯하는통에 요동군사가 련방
총알을밋고 쓰러지는데 선부사유가 총에마저죽는다 조승훈이 먼저 말머리
를돌니여 성을버서나고 군사들이도라나오는데 미끄러우존흙바닥에 헤여날
수가업서서 거의전부는 참살되얏다 조승훈은 평양성을버서난뒤로 뒤도도
라보지안코 잘못다라나며

『이번은 군사가 적어서 패하얏스니 도라가 다시 만은군사를거나리고나
오겟다』

는말을 퍼치우고 압록강을건너가서는 평양성의패군한벌을 당할가 겁내여 명
나라조정해보하기를

『요동군사가 평양성을쳐서 거의이리게된것을 조선군사하씨가 일본진에항

복하고 일본군사를도아서 패하고쫓겨왔스니 조선이 필경은 일본과엇디

한내응(內應)이잇는것이라』

하는무고(誣告)를하야 광녕수장(廣寧守將)이 명나라조정의명령으로 조선에
대하야 질문을한다 조선서도 이일에대하야 윤두수를명나라조정에보내여조
승훈의무고를 변명하얏다

명나라장수조승훈이 패하야드리간뒤에 왕의행재소에서는 묘향산(妙香山)속
에숨어잇는 서산대사(西山大師)라는늙은증을 불너나려 란리평정할알을무르
니 서산대사는 조선안에승군(僧軍)을 이룩키겟다하야 서산대사로 팔도도
총섭(八道都摠攝)을 제수하고 승군을이룩키게하니 서산대사는 제자의의암
(義巖)으로 서도총섭을직여 도원수의진에부치고 각도로 격문을보내여 총
청도에는 령주(靈圭)가이러나고 전라도에는 처영(處英)이이러나고 강원도

에는 임유정(任惟政)이 이러하니 임유정은 당시에 유명한사명당(四溟堂)이다. 서산대사는 진중에 군량(軍糧)을 대이기로하고 순찰사리원의 순변사리민은 순안에진을치고 방어사김응서는 별장박명현(朴命賢)과함께 룡강삼화(三和) 증산(甌山) 강서(江西)에 네고을군사를모아 평양서편에서 이십여屯(二十餘屯)을버리고별장림중(林重)은 수천명의정병(精兵)을거나리고평양성밋데 진을치고 수사(水使) 김억추(金億秋)는 관서(關西)의수군을거나리고 대동강하류(下流)에서 룡군과련락하여 평양을엿보니 왕에행재소에서 조선군사의세력이 명나라구원병을청하여오지안이하야도힘이너々하다하얏다 순안에진친 리원익의군사가 몬저 보훈문으로 쳐드러가고 별장리중의정병이 성을치기시작하야 하토에세번을 격렬이싸왔는데 필경은 일본군사의세력을 대적지못하야 모다물너나스나 김응서홀로 물너가지안이하고 평양서편에서 산악갓치 직히고잇섯다

명나라조정에서는 조승훈이 패하야드러간뒤에 일본군사의세력이 강성함을 알고 일본과강화를하라하야 병부상서석성이 상품을내걸고 일본에강화사를 구하얏는데 일본사정을안다는 식유경(沈唯敬)이나서々 강화를부친다자원하얏다 그리하야 심유경이 명나라유격장군(遊擊將軍)의직함(職卿)을엇어가자

고 조전에나와 평양에잇는 일본장수소서행장에게 강화를하겟다동지하니소서행장은 의심업시 심유경을불너보고 강화에대하약속을한뒤에 식유경은 다시 명나라에단여오기로 평양서떠난다 그러나 조선서는 강화를즐거안이 하야 련해 명나라조정에 사신을보내여 구원병을청하나 이때명나라에는녕하(寧夏)에 출정(出征)하얏든 리여송(李如松)의군사가 돌아오기회에 명나라조정에서는 조선으로구원병을보내기로 결정이되야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 송응창(宋應昌)을 경략(經略)으로하고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류화상(劉黃裳)과 주사(主事) 원황(袁黃)으로 찬화군무(贊畫軍務)로하야 요동에주둔하게하고 총대장은 리여송으로하야 조선에출병하니 중협대장(中協大將)은 리여백(李如栢)이며 우협대장(右協大將)은 장세작(張世爵)이오 좌협장군(左協將軍)은 양원(楊元)이니

지휘사(指揮使) 자강(自強)이하 아흥장수가 거나린 마보병(馬步兵)일만 명은 중협대장의진에 부치고

부총병(副總兵) 왕유익(王有翼)이하 일곱장수가 거나린 마보병칠척백명은 전부총병(前副總兵) 조승훈에 진에부치고

유격장군오유충(吳惟忠)이하 일곱장수에 거나린 마보병팔천명은 우협대장의진에 부치고

이박계

참장(參將) 장괴절(張奇切)의 마병이 일천이오 유격장군조윤명(趙允命)의 마병이 일천이오 도독동지(都督同知) 리평(李平)의 마병이 팔백이오 유격장군시조경(施朝卿)의 마병이 일천이오 유격장군고철(高徹)의 마병이 일천이오 요동지휘사첨지(遼東知揮使僉知) 장삼외(張三畏)는 의주에 나와서 군량을 수운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동정제독(東征提督) 리여송의 대군이 출발하여 산해관(山海關)을 넘을 때에 평양서셔나 드러가는 심유경의 일행이 마조쳤다 강화를 약속하고 드러오는 심유경은 명나라 조정에서 출병한 것을 보고 놀나 리여송의 진에 드러가 평양에서 소서행장과 약속하고 드러오는 일을 말하니 리여송은

『대군이 출동하는 진에 드러와 무슨 탄소리나 너 갓흔 협잡군은 노아 보낼수 업스니 진중에 가두겠다』

하고 심유경을 잡아 송응창에 진에 가두고 군사를 몰아 압록강을 건너섰다

압록강을 건너 선 리여송은 안주(安州)에 이르러 남문밖계두둔하고 사대수(查大受)를 몬져 순안(順安)으로 보내여 평양소식을 탐문하라 하고 점빈사류성(秦斌)을 평양에 지형(地形)을 자세히 알아본 뒤에 이른날 숙천(肅川)에 이르러 사대

수의 회보를 듣고 곧 순안으로 쫓아가서 밤을 지내고 새벽부터 평양성을 치

기 시작하였다 조선장수로는 도원수 김명원을 비롯하여 리원익, 리빈, 김응서

의 무리가 후원을 하는데 명나라 군사는 락상지(駱尙志) 오유충의 군사가 몬져

성에 기여 오르기 시작하여 압해군사가 썰러지면 뒤에서 썰며 맞치며 일본군사의 조

총알들 무릅쓰고 성을 넘어서니 리여송과 양원이 몬져 성을 넘어 드러와 성을

한바퀴 도라나오다가 리여송의 말이 총을 맞고 거꾸러진다 리여송은 말케 썰

어지며 일변 말을 박구어라고 사면에서 드러오는 군사를 지휘하여 일본군사

를 못지르니 일본군사는 대적지 못하고 내성(內城)으로 몰려 드러가 성위호

로 장치(裝置)한 토벽(土壁) 구멍으로 총 쏘리만 내어 놓코 총질을 한다 리여송은 싸움을 이기기에 군사가 피곤하여 내성까지 조차 드러가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도라왔다 당초에 평양성을 지키는 일본군사는 이만이었스나 이날 싸움에 반수가 넘어 죽고 겨우 류철천에 군사가 내성으로 몰려 드러간 뒤에 소서행장은 일변 봉산(鳳山)에 주둔한 대우의순(大友義純)에게 구원을 청하고 평양성을 에워싸은 조선군사들은 밝는 날 내성을 치기로 약속하였다 이날 밤에 김응서는 평복(平服)으로 칼을 잡고 나서서 성안에 드러가 내성주위를 도라나오더니 성벽 위에서

『읍바!』

부르지조는 계집에우름소리가 이려난다 김응서는 귀를기우리고 듯다가
『나 예있다 누나야!』

하고 성위로 성큼을나가서 우는계집에게로 손을내미니 계집도

『아이고 읊바!』

하고 김응서의손에 매달린다 김응서는 말소리를낮추어

『누구나』

고무르니 계집은

『저는 평양감영기생 계월향(桂月香)이예요』

『웬일이냐?』

『일본군사가 평양에드러온뒤로 저는 소점의부장에게잡혀 일본진에드러

가 부장파지내드니 지금 그부장이 술이취하야잠이든들을라서 밤게나와

사나히를 하나다리고드러가 그부장을 죽이려구요』

『그럼 누가자』

하고 김응서가 자원하니 계월향은 어두은밤이라 김응서의똥신이 얼마이

나 위엄스러운것도 알수업서서

『아니예요 그부장이 힘이세여서 여간사나히가 드러갓다가는 되죽어요』

하고 김응서의심한다 응서는

『부장하나야 못죽이라 내가 김응서인데

하고 자기일흥을 부르니

『롱강장사 김응서란 말씀이예요』

하고 계월향이 못는다

『그렇다!』

김응서는 대답하며 성탁위에서 늙어모지라진 느티나무밧등을쥐고 한번 힘

을쓰니 성들이 와르르문허지며 느티나무썩리가 썩힌다

『아이참 장사심이다』

하고 계월향은 만족하야하며 김응서를 인도한다 김응서가 발자취를죽이

며 계월향의뒤를따라 부장에진속으로 드러가는데 활서너바탕거리를가드

니 계월향이 거름을멈치고

『예랍니다』

하고 장막을 바스스열어준다 김응서가 칼을빼여들고 장막속을들여다보니

희미한 초스불밧해 얼골밧해 주홍갓흔 장사하나이 눈을씩부르쓰고 누어

있다 눈을쓰고잇는장수에게 칼질하기가 서마서마하야 장막안으로 드러노

왔든 김응서의발이 저절로 물너서니 갓해섯던 계월향이 김응서의귀에입

을대이고

『저사람은 술이 취하면 눈을 뜨고 자요』
 하고 일어나준다 김응서는 그제야 장막안에 드러서며 칼을 날려 부장에 목을
 치니 머리 찢러진 장수의 몸뚱이만이 길갯이 썩다 김응서는 부장의 머리를 칼
 뜻혜 썩여 들고 장막 밖 그로 나와서 계월향을 겨드랑이에 끼고 진중을 도라나오
 는데 갑작히 진중이 수렁거리며 군사가 예서제서 내닫는다 김응서가 아모
 리 무서운 장수라 하야도 군사가 별세 갖치 일어나는 남의 진중에서 겨드랑이에 서
 람하나를 끼고 다라 단다기는 도저히 못될 일이라 김응서는 계월향의 귀의 입
 을 대이고
 『일이 이지경이니 네 몸뚱이는 바려야 하겠다 서운이 생각지 말어라』
 하는 말을 이르고 칼을 빼여 계월향의 머리를 툭썩어서 몸은 바리고 머리만 팔
 뚝에 휘감아가지고 내성을 버서났다

김응서가 내성을 나올 때에 이르러 선 일본군사들은 그길로도망을 하니 봉산으로
 구원을 청한 소서행장은 봉산의 대우의 순이 이의 군사들 거두어가지고 서울로
 달아나서 구원이 실패치게 되야 소서행장은 이밤에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버
 서나 서울길로 다라나며 황해도내에 주둔한 군사를 전부 거더 갖다 이른날 리여
 송은 일본군사가 다라 단것을 보고 분하야 조선장수들을 불너 책망하기를

『도원수 김명원은 엇지다가 일본군사를 다라나게 한단 말이오 차라리 순변
 사리 빈이나 방어사 김응서가 도원수 갖르면 일본군사를 늦치지 아니 하리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일본군사를 일히 바린 허물을 조선도원수에 게로 덤퍼 싸우
 는 수작이다 리여 송은 평양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서울을 회복하야 군
 사를 이끌고 서울로 향하얏다 리여 송이 개성에 이르러 조승훈과 손수림(孫守
 廉)을 선봉으로 하고 조선장수들은 후원을 하게 하고 립진강을 건너 파주(坡
 州)에 이르니 전초(前哨)로 나 갖든 명나라 장수 사대수와 조선장수 교언백의 군
 사가 간밤에 려산(礪山) 고개 밋테서 야경(夜警) 도는 일본군사와 충돌이 되
 야 명나라 군사 백여기(百餘騎)를 일히 버리고 도라왔다 리여 송이 기병이
 천과 보병수만을 이끌고 벽제관 碧蹄館)으 쫓차가 일본군사와 싸호니 이
 때 일본군사는 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이 조직한 번조병(番組兵)이라 번
 조병이 련방나오며 싸호는중에 리여 송은 군사를 절반이나 일코 파주로 물
 나와 조선장수들이 붓잡는 것도 못지 안코 립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개성
 서 평양으로 물너 갔다

벽제관서 명나라 군사가 싸울 때에 전라 순찰사 권틀 權慄)이 서울 잇는 일본
 군사를 처라 하야 남도의 수만 명군사를 거나 리고 한강을 건너라다가 길을 돌
 니여 양천강(陽川江)을 건너 행주산성(幸州山城)으로 드러가 류진하고 서울

을 위협하였다. 일본장수들이 권력의대군이 해주산성에 웅거한 것을 알고 가등(加藤)、목촌(木村)의 무리가 수만군사를 이끌고 해주산성을 쳐다가 권력의 솜씨에 군사를 전부 일코 참패하니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의 무리가 다시 수만군사를 이끌고 해주산성으로 쫓차갓스나 권력의 진이 이미 과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기었으므로 해주산성의 빈터에 불만지르고 도라섰다

해주산성에서 큰싸움을 이기고 과주산성으로 진을 옮긴 권력은 강화(江華)에 주둔한 김천일(金千鎰)의 군사와 림진에 주둔한 김명원의 군사와 양주(楊州)로 내려간 고인백의 군사와 련략하야 서울을 회복하라 하고 황해도는 리정암(李廷龜)이 옹거하고 강원도는 원호(元豪)의 군사가 지히고 할경도는 정문부(鄭文孚)의 군사가 이러나 함경도를 점령하였든 가등청정의 무리가 그 동안에 쫓겨 서울로 드러오니 서울로 모힌 일본군사의 형세는 남도로 밧게는 다라날 길이 없스나 남도에는 곳곳이 의병이 이리났고 경상전라해안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리순신의 거북선(龜船)이 나타나서 바다위의 왕노릇을 하니 일본군사는 조선안에서 갈 곳이 없섯다 장수나 군사나 어더 케든지 조선쌍을 버서나기만 조이는 판에 명나라 강화사 심유경이 서울로 차저와 소서행장의 무리를 보고 다시 강화의 문하에 퇴였는데 심유경의 말이

『너희가 몬져 군사를 거두어가지고 경상도바다가으로 물너나서 가만이 잇스면 강화를 되게 하마』

하는 것이 첫조목이다 이때에 일본장수더러 남도바다가으로 내려가라는 말은 지옥(地獄)문을 열어주는 말이라 일본장수들은 그저

『네!네!』

하며 군사를 거두어가지고 함시에 서울을 켜나 남도길로 내려갓다 벽제관에 서 패군한 리여송은 본국으로 드러가랴다가 조선장수들에게 붓잡혀 평양에 주둔하고 송응창의 진에 가두엇든 심유경을 불너내여 일본장수를 썬이여 남도로 보내게 한 것이다 일본군사가 서울을 켜나든 이른날 리여송의 군사가 서울로 드러오고 왕의 대가 드러오고 도원수 김명원의 군사를 비롯하야 조선장수들의 거나린 군사가 차례로 서울로 모아 드러왔다 명나라에서 사척총병(泗川摠兵) 류정(劉挺)이 오천군사를 거나리고 새로나와 일본군사를 쫓차 성주(星州)로 내려가고 오유충(吳惟忠)은 선산(善山)으로 내려가고 조승훈은 거창(居昌)으로 내려가고 락상지(駱尙志)는 경주(慶州)로 내려가고 리여송은 조령싸지나려갓다가 서울로 도라오고 도원수 김명원과 순변사 리빈이며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는 령남으로 내려가고 충청병사 황진(黃進)이며 전라방어사 리복남(李福男)이 내려가고 전라감사 권물은 본도에 내려가 도내의 군

사를 새로 모집하여 거나리고 운봉(雲峯)을 넘어 영남으로 내려가고하여 경
 상도해안으로 물너간 일본군사를 꺾박하였다
 경상해안에서 꺾박을 당하는 일본장수들은 돌연이 진주성(晋州城)을 치게
 되었다. 진주성은 견고하기로 천하에 제일이라 하는 성으로서 작년시월(十月)에
 수길(水吉)이 세천충흥(細川忠興)·가등광(加藤光泰)의 무리 이끌고 장수를 보내어
 진주성을 치다가 진주목사(牧使) 김시민(金時敏)과 곤양군수(昆陽郡守) 리광
 약(李光岳)의 손시에 수만명군사가 도륙이 되어 참패한 뒤에 수길은 진주성
 의 참패한 것이 일본장수의 괴운이 썩기는 것이라 하여 이번엔 진주성을 다시
 치게 한 것이다. 부산해안으로 삼심팔둔(三十八屯)을 버리고 있는 일본군사가
 일시에 진주로 모혀드러 밤낮아흐레(九日) 동안을 격렬히 싸워서 진주성을 도
 륙을 내었다. 진주성안에는 성장(城將) 서례원(徐禮元)을 비롯하여 김천일(金
 千鎰) 이하 황진(黃進)·장윤(張潤)·리종인(李宗仁)·고종후(高從厚)의 무리
 일류명장이 절사(節死)하고 군사와 백성을 합하여 하루에 육칠만명 사람이 죽
 었다. 조정은 진주가 도륙난 뒤로 권틀을 도원수로 하여 도원수의 진을 영남
 에 두고 롱강장사(龍江將) 김응서를 경상병사(慶尙兵使)로 보내어 영남을 견제하니 영
 남일대에는 충용장군(忠勇將軍) 김덕령(金德齡)이 회맹하고 홍의장군(紅衣將
 軍)과 재우(郭再祐)가 이르렀다. 진주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심유경은 일본진

에잇스며 강화를 주장하여 일본장수에게는 싸움을 못하게 만류하고 조선장수
 에게는 진주성을 비여두라고 전고하였으나 조선장수든지 일본장수든지 심
 유경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심유경이 소서행장과 함께 일본에 드러가 수길
 의 압폐서 새로 강화를 약속하고 나온 뒤로는 일본장수들이 한낱 풀니여 드러
 가며 조선에 처져 있는 장수들은 강화로 기우러져서 강화를 배척하는 가등청정
 까지도 강화를 하라 한다. 조정에서는 왕이하백관이 모다 강화를 배척하는데
 성혼(成渾)·류성룡(柳成龍)·리정암(李廷諤)의 무리 몇 사람이 강화를 허락하
 자하고 일본장수 소서행장은 성주에 주둔한 명나라장수 류정(劉挺)과 결탁
 하여 강화를 도모하기에 힘쓴다

그동안에 소서행장은 병사 김응서에 대대하여 강화를 청하라고 여러 차례 서
 신(書信)을 보내어 김응서를 보자고 청하였으나 김응서는 번번이 거절하였
 드니 소서행장이 부장(部將)을 병영(兵營)에 보내어 부대한번 만나게 하라
 고 간절히 말함으로 김응서는 부하 리홍발(李弘發)을 소서행장의 진에 보내
 여 회사하고 소서행장의 보자하는 리유를 무르니 소서행장의 말이

「조선에서만 강화를 허락하면 일본군사가 전부 거처드러갈 것을 조선에서
 고집(固執)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니 병사가 나서서 강화를 하게 하라」

한다 리홍말은

『말대로 병사에게 전하겠다』

말하고 병영에 도라와 병사에게 말하니 김응서는 이러한 회에 일본장수들 사이에 리간(離間)을 못치여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이룩기라 하야 부하리민(李敏)을 다시 소서행장에게 보내여 말하기를

『싸호러나 왓스면 싸호를 보이지 행장은 왜 강화를 주장하느냐 일본서 수길 이 현명(賢明)한가 등 청정이오 우매(愚昧)한 소서행장이라 한 것이 청정은 싸호라 하고 행장은 강화를 주장하는 사닭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약 교활(狡滑)한 소인 소리를 듣는 소서행장은 김응서의 말에 라나지도 안코 천연스럽게

『조선서는 엇지 하야 가 등 청정의 진에는 상종을 잘하고 내게는 상종을 잘 아니 하는지 모를러라 드른즉 청정의 진에는 옥관자(玉貫子) 못치고 붉은 락(紅帶) 락 조선량반(兩班)이나 곧갓쓰고 먹장삼님은 스님(僧)네가 쓴 치잔코 차저간 다 든걸

대체 청정과 무슨일로 그다지 차별들한지 청정이야 실상 조선에 나와서 무슨 일한 가지나 한 것이 있나 그저 한다는 것이 살륙(殺戮)이나 하야 수급(首級)으로 공을 세우라고 눈이 벌겍치』

하며 말하는 속에는 은연중 청정을 시괴하고 미워하는 행장의 속이 드러나니 리민은 이 회에

『그러기에 말이오 왜 청정의 죄를 수길에게 보하야 청정이 죄를 쓰고 죽게 아니 하오』

하고 행장의 눈치를 보니 행장이 이 말에는 대답이 없다 리민은 행장과 청정의 사이에 서로 울군 불군 하는 것이 우수워서 행장의 진에서 나올 때에 행장의 부하 다려

『대체 너의 진에는 누가 대장이냐』

하고 무르니 부하는 『대장이요?』

하고 한참 생각하드니

『직품(職品)으로 말하면 죽도(竹島)에 주둔한 와도직무(鍋島直茂)가 대장이지요 마는 일본의 관백이 조선의 군무(軍務)를 모다 우리 장군에게 맞기 엇스니 싸 군무는 소서행장이 주장하게 되지요』

하고 대답한다

소서행장의 말에 조선의 량반이나 스님네가 가 등 청정을 상종한다는 말이 빈 말은 아니다 가 등 청정의 진에 여러번 차저간사 람은 승장(僧將)사명당이 었는

데 사명당은 강원도총섭으로 도내의 승군을 이르게 여러곳에서 공을 이루
 다가 도원수의진이 령남으로 옮긴뒤로 승군을 거나리고 도원수의진으로 드러
 와 북쳐잇스며 일본장수들의 강화하라는것을 방해하라고 청정의진에 드
 나드는것이다 사명당이 청정의진에 드나드는길에는 자연이 병영에 들려서
 김응서를 차져보게되는사담에 항상 가등청정을 미워하는 소서행장은 김
 응서를 사이에노아 사명당과 청정의사이에 무슨일을의론하는가 물어보라
 하고 또 소서행장을 미워하는 가등청정은 사명당을 사이에노아 김응서와
 행장의사이에 무슨일을의론하는가 아러보라고 애를쓴다 이리하는 사품에
 사명당은 가등청정의압혀서 소서행장의말을하다가 분을도스아줄나치면 청
 정은

『그저 습속에서 소공장사하는놈의 자식이란 하는수업서』
 하며 소서행장의근본을 들추어내며 피파고 또 김응서가 소서행장에게 청
 정의말을 쓰내다가 슬그머니 골을질너주면 소서행장은
 『셋셋한놈 촌구석에서 쌍이나파먹든버릇을 못노쿠서』
 하며 청정의밋천을 드러내인다

이러케 김응서와 사명당이 사이에드러서 청정과행장의사이를 휘정거리는

동에 강화는 점점들녀가드니 심유경이 일본에드러가 일본강화사 내등어
 안(內藤如安)을 다리고나온뒤로 일본장수들이 전부 거처드러가고 명나라
 군사도 훨씬 거처드러가고는 심유경을 대장으로한 강화사 내등어안의일행
 만이 명나라로 부산으로 몰려단이며 이삼년(一三三)을 쓰러오드니 명나
 라에서 일본으로 책봉사(冊封使)가드러가드니만 일이 엇더케 뒤집혀 일본
 군사가 다시 조선을나오게되얏다 이번도 성봉이되야나오는 소서행장의진
 이 몬져 부산에나오드니 소서행장이 능청스럽게 병사김응서에게 통지하
 기를

『나는 이번에 마산포(馬山浦)에 진을칠터인데 안골포(安骨浦)에진철 일
 본군사는 모다 겁탈을잘하고 노략질이일수이라 안골포군방은 어육(魚
 肉)이될것이니 한안(咸安), 진주(晉州), 진해(鎭海), 고성(固城)의멧고을
 백성들을 좌도(左道)로 미리옴기여 화를면하게하라
 나는 이번 나온일을 엇더한비밀이라도 경상병사에게는 은취치안코 통
 지해줄터이니 병사는 나를 의심치말나』

한다 김응서는

『누가 제일을 알고심다나』

하고 다만 도내의병사(兵馬)를 단속하기에골몰하드니 소서행장이 또 요서

김응서실과

라(要時羅)를 등변으로 보내여 하는말이
『나와 청정의사이가 조치못한것은 병사도 아는터이니말이지 청정이 아
모날 대마도에서떠나 아모날 어느곳을지날터이니 수군동제사리순신이
나가서 목을밧고잇스면 우리가 청정의매를 가라쳐줄터이니 리순신의숨
시로 청정을잡게하라』

한다 김응서는 소서행장의이변하는말은 군사상(軍事上)의 관계되는말이라
덤퍼들수업다하야 오시라의전하는말을 도원수권들에게보하얏다 도원수권틀
은 김응서의보고대로 조정에보하얏드니 조정에서는 리순신에게 출병을
명령하얏스나 리순신은

『이것이 일본장수들의 간책(奸策)이라』

하야 출병치아니하얏드니 가등청정이 상륙한뒤에 조정에서는 리순신의출
병치아니한것을 죄로모라 리순신을과직(罷職)하고 경상우수사원균으로 수
군동제사를 보내엿다 원균이 수군동제가된뒤에 소서행장이 또 김응서에
요시라를보내여 말하기를

『일본후군(後軍)이 어느날 아모데를지나올것이니 이번은 실수말고 수군
동제사가 중로(中路)에나가서 후군을치게하라 만약 후군이 상륙하면 후
군은 모다 수급(首級)으로 공을세우라할것이니 전공(戰功)에잇서 우리

가 애일러임으로 조선수군의힘을비려 후군을엄시하라하는것이이다』

한다 이번에는 김응서도 의심이낫스나 도원수에게 보하지아니할수업는
일이라 오시라의말대로 도원수에게 보하니 도원수는 조정에보하야 조
정에서 수군동제사원균에게 출병명령을 나리엿다 출병명령을마든원균은

『만약 출병을아니하얏다가는 리순신과 갓은벌을 당할일이라』

하야 리순신의작만한병선과 군사를 전부이끌고 나가다가 북병을만나 썩씨
는데 바람이이러나 병선을 절박이나 바다속에잡아니코 거제(巨濟) 공천도
(恭川島)로밀녀온것을 고성(固城)에잇는 도원수전에서 분하야 원균을 도
원수의진으로 잡아드려 벌을쓰이고 싸움을독촉하얏드니 원균은 화가나서
술만먹고는 술수정으로 관을치다가 일본군사의습격을당하야 군사와병선을
전부 일쳐버리고 혼자 룩지로피여올너 다라나다가 원균도 피살되얏다

김응서실과

일본군사가 가장두려하는 조선의수군이 결단난뒤로 일본장수들은 그세를
엿더 일변 전라도로향하야 황석산성(黃石山城)을매르리고 남원(南原)을과하
고 전주(全州)를치고하야 전라도내의 주둔하얏든 명나라군사를 쫓친뒤에
후전장정(黑田長政)의군사는 서울로올너가고 소서행장의군사는 순천(順天)
에주둔하고 그남어지군사는 전부가 경상도로 도라와 바다가에주둔하니

부산은 소조천수추(小早川秀秋)대장의진을 두고

량산(梁山)은 흑전효고(黑田孝高)의 참모본부(參謀本部)을 두고

사천(泗川)은 도진의홍(島津義弘)의진을 두고

남해(南海)는 립화정종(立花正宗)의진을 두고

죽도(竹島)는 와도직무(鍋島直茂)의진을 두고

울산(蔚山)은 가등청정의진을 두고

하야 울산서생포(西生浦)에서 순처사지 바다가으로 칠백여리(七百餘里)를
런하야 진을치니 일본군사의세력이 이러케 경상해안으로 몰닌것은 일본장
수들이 몬저나왔슬에 서울과평양을 근거지로한것이 실패한원인이라하야
이번은 경상해안을 근거지로한것이다 일이공교하게 일본군사의세력은 김
응서가 평안도에잇슬때에 평양으로모힐것과 마찬가지로 김응서가 경상도
에잇슬때는 일본군사의근거지가 경상도에잡히게된다 김응서는 도내의병마
를 단속하기에 분주하얏다

명나라에서는 강화가 매여지고 일본군사가 다시 조선을나오게되니 일본의강
화를주장하든사람은 석성이하로벌을나려 심유경은 사형(死刑)을주고 다시큰
군사를움죽여 양호(楊鎬)를경략(經略)으로하고 형개를 총독(總督)으로하고

마귀(麻貴)를 제독(提督)으로하야 조선에보내니 양호의군사는 평양에머물
고 마귀의군사는 서울로드러와주둔하고 모든장수를 남도에분발하얏든것
이 전라도에나려갓든 진우충(陳愚衷)의군사는 전주서패하고 양원(楊元)의
군사는 남원서패하야쪼셔오고 일본군사는 서울을향하야 충청도를범하니
평양에머물든양호가 군사를이설고 서울로드러와 제독이하 모든장수를 소사
평(素砂坪)으로 보내여 일본군사를막기로하얏다 서울을향하야올너오든 일
본군사는 소사평에이르러 명나라군사와 서로만나서 싸흠이시자되니 하늘
가치넛은들판에서 열흘동안을 맹렬이싸호다가 흑전장정의선진도패하고 모
리수원(毛利秀元)의후진도 패하야 경상도로다라났다

소사평에서 직산대첩(稷山大捷)이라는 큰싸흠을이긋인 명나라장수들은 다
시 경상도에주둔한일본군사의근거지를 치기로하야 수십만명의군사가 세부
대(部隊)로남우어 경상도로나려가니 좌군은 리여매가 거나리고 중군은고
책(高策)이거나리고 우군은 리박춘(李芳春)이 거나리였다 경략양호의지휘
로 몬저 울산을쳐서 가등청정을잡기로하고 경주로나려가니 경주에는 조선
장수도 만이모혀드렀다 조선군사는 울산에 구원병이들어갈만한길목을 적
히고 명나라군사는 울산으로드러가니 울산의가등청정은 울산성에 본진을

두고 도산(島山)에 새로성을싸여 울산본진의근거지를하랴하야 도산성에역사(役事)를 붙치고 가등청정은 서생포(西生浦)로가서 괴장(機張)해안에잇섯다 명나라군사가 울산성을에위싸고 한몫은 도산성을 치기로하는데 도산성은 사면으로높은산이 두르고 험한바위가쌓니여 도산성을치러가든 리방춘이 도산성의지형이험한것을보고 군사를 물니라하다가 마귀의후원을어더 도산성을치고 양호와 리여매는 울산성을치니 울산성에는 천야행장(淺野幸長)이 가등청정의대신으로 군사를지휘하니 명나라장수들은 천야행장을가등청정으로알고 천야행장을잡으라고 애쓴다 천야행장이 형세가위급하야 서생포의잇는가등청정에게 간신이 사람을보내여 통지하얏스나 울산서 서생포가는길이 사흘일이되야 울산성안에갓친 일본군사의근경이말이못되드니 겨우 가등청정이 울산성에도라와서도 성을구원할수업섯다 이심만의 명나라군사가 외로운성안에드러잇는 군사를 에위싸앗스니 구원병이드러오지안코는 헤여날수가업는리에 구원이드러올만한기목은 조선군사가직힘으로 서로 련락조차 싣치고 명나라장수들은 울산성안에서 먹는물길을 싣어노아 성안의군사들은 자기오줌을바더먹고 장수들은 말을잡아 피를마시고 지나가는중에 량식이찌러져 굶어죽을지경이다 벽흙을긋어먹는다 눈(雪)을집어먹는다하드니 량산에주둔한 후전효교가 울산성의급함을알고 각처로구

원할물너 경상해안의 여러장수들이 군사들이살고 울산으로모아들기시작하야 울산성복문받게서 명나라군사물니칠 의론을하고 와도직무의병법으로명나라군사를 물니치니 이때 명나라군사가 패하야다라날때에 군기(軍器)와군량을바린것이 산과들에덥혔다

명나라군사가 울산싸흠에패한뒤에 경략양호가 파면되야드러가니 명나라조정에서 찬화주사(贊畫主事)정응태(丁應泰)가 울산싸흠에패한것이 양호의허물이라하야 이십여가지죄목을 엮어 양호를파면한것이다 양호가드러간뒤에 명나라에서 다시 만세덕(萬世德)이 경리로나오고 동일원(董一元)이 제독으로나오고 수사제독(水師提督)진린(陳璘)이 수군을거나리고 나와서 진린의수군은 순천(順天)바다로나려가니 그동안에 조선수군은 원군이참패한뒤에 리순신을 통제사로복직(復職)하야 수군을다시수습하게되얏다 순신이 도원수권틀의진에 백의(白衣)로종군(從軍)하다가 통제사복직이되야 본영을 전라수영으로옮기고 사방에허터진군사를거두어 새로병선열세척을 작만하야가지고 명량해협(鳴梁海峽)에드러가 일본병선 삼백여척을 바다속에갈아안치뒤이다 진린의수군이 순천바다에드러온뒤에 리순신은 명나라군사를후대하야조선수군이 싸흠을이긴것도 명나라군사의공으로돌녀보내니 첨에 거만을부

리는진린이 순신의도량에 탄복하여 명나라군사를 리순신에게 맞이여 순신의 절제를받게하였다

명나라육군은 다시세길(三路)로나려가는데 마귀의거나린이만사천군(二萬四千軍)은 동편길로나려가 을산의가등청정을치고 동일원의거나린 일만삼천군(一萬三千軍)은 북관길로나려가 사천(泗川)의 도진의홍(島津義弘)을치고 류성(劉挺)의거나린 일만삼천군(一萬三千軍)은 서편길로나려가 순천의소서행장을치게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일본장수들은 싸움마음이업고 모다 본국으로도라가라는 기회를엿보게되었다 일본진에는 관백수길이 죽었다는소문이퍼져서 다라나기 조흔곳에 주둔하였든장수는 벌서 배를돌녀드러가고 사천의도진의홍과 순천의소서행장이 처저잇섯다

동일원의군사는 사천에서 싸호다가 패하야도라오고 류정의군사는 순천왜교(倭橋)에 주둔한소서행장과 싸호게되었다 왜교의지형이험하야 치기에힘이드러 여러날을상지하고잇섯는데 왜교에주둔한소서행장은 싸움경황이업시군사를거두어가지고 본국으로가라하나 압바다에는 수군이 길을막아움

죽일수업스니싸 류정에게 뇌물(賄物)을보내고 다라날길을빌녀달나한다 류정은 뇌물을받고

『그리하라』 허락하였슴으로 소서행장은 군사실은매십여척(十餘隻)을몬져 바다에내노압드니 진린의군사가 쏘차와 싸려업는다 소서행장은 속은것이 분하야 류정에게 질문하니 류정은

『이번에 일본병선을 친것은 수군의소위이니 육군은관게가업다』 고 회답한다 행장은 일이 그럴쑥하야 다시 수군제독진린에게 은백량(銀百兩)과 보도오십개(寶刀五十個)를보내며

『일본군사는 싸호지안코 본국으로도라가는길이니 길을빌녀달나』 하니 진린이 허락하였다 소서행장은 쏘두어척병선을 바다로내여노으니 리순신의군사가 달녀와 물에집어넋는다 행장은 다시 진린을책망하니 진린의 회답이

『이번은 조선군사의소위인즉 명나라군사는 관게업다』

한다 행장은 일이 순례로되지아니할것을 새닷고 죽든살든 바다로 나서보기로결정하였다 리순신이 소서행장이 바다로튀어나올것을 짐작하고 명나라군사는 곤양(昆陽)죽도(竹島)로보내여 길을지히게하고 리순신은 남해(南

海 觀音포(觀音浦)로나가서 목을받고잇드니 海장이 사천의 도진의홍에게
 구원을청하야 의홍과해장의군사가 합하야 바다로나선다 順신이 거북선을
 내노아 海장의병선 수백척을 볼로태우니 海장이 쫓다라나다가 묘도(猫
 島)에서 海에나려 승으로그이오른것을 海장의뒤를싸루든 종의지의병선이
 지나다가 海장을 구원하야가지고 다라나다가 의홍의병선이 진린의군사와
 싸호는것을보고 海장이 드러가 구원하게되니 명나라병선이 일본군사에비
 겹々으로 에워싸이여 진린의형세가 위급할때에 리순신이 쫓차드러가 구원
 하드니 마침 총병(摠兵)등자룡(鄧子龍)의배에서 불이이러나며 군사들이소
 동하는들을타서 일본군사가 등자룡의배에 썩여올너 자룡을죽이랴하는것을
 리순신이보고 자룡의배로 썩여오르는사이에 탄환이날너드러 리순신의가슴
 을마춘다 리순신이 배에서 넘어지며 부하들이 달너드러 順신을구원하야 자
 막으로드러가는데 順신은

『싸흠이 쫓나기전에는 나죽엇단말을 말포하지말나』
 는유언(遺言)을하고 세상을떠난다 리순신의 죽하리완(李堯)이 順신의대신
 으로나서서 독전기(督戰旗)를들으며 싸흠을계속하야 일본군사를 대마도(對
 馬島)로쫓차다

일본군사가 거처드러간뒤에 조선에는 명나라군사도 거처드러가게되야 형개
 의군사가 몬저드러가고 만세덕(杜濟), 리승훈(李承勳)의 거나린군사가
 서울을직히다가 이듬해에 만세덕의무리도 드러가고 명나라남병(南兵)삼천
 이처저서 조선의월은(月銀)을받고 남도의해안을직히였다

그후갑진(甲辰)년에 일본서 굴지정(橘智正)이 덕천막부(德川幕府)의명령으
 로 조선에나와강화를청함으로 조선서는 사명당이 일본에드러가포로(捕虜)
 로잡혀드러가잇는 남녀삼천(男女三千)을 다리고나왔스나 강화는허락지아니
 하드니 류영경(柳永慶)이 령의정(領議政)이된뒤로 덕천막부에교섭하야 임
 진년에 일본군사가 성종(成宗), 중종(中宗)의두릉을파내인 범릉적(犯陵賊)을
 잡아다가 참형(斬刑)을행한뒤에 강화를하기로하야 여우길(呂祐吉)을 정사
 (正使)로 경섬(慶暹)을부사(副使)로정호관(丁好寬)을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야 일본의강호(江戶)와 준부(駿府)에보내여 강화를허락하는데 이때일본
 의덕천막부는 주인이갈니엿슴으로 새주인은 조선이 강화를허락하는것이아
 니라 강화를청하는것이라 주장하야 말성이되얏다 그리하야 선조시대에는
 인해 일본의강화가되지만고 광해주(光海主)원년기유(元年己酉)에 기유조약
 (己酉條約)을 매저 통상(通商)을 허락하얏다

이뒤로 조선에는 병란이 삼치였드니 광해주십일년에 조선서 명나라로 구
원병을 보내게 되었다 명나라는 북방에서 새로이러나는 청(淸)나라와 년래
로 전쟁이 노야 제독리여송이 북로(北虜) 싸움에 전망(戰亡)하고 명나라는 다
시 병략양호로 군사를이룽겨 청나라를치게되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년래로
싸움이자저서 군사가 모다 피곤하여 불갓치이러나는 청나라의 강성한군
사를 치기에는 힘이부족하여 조선으로 구원을청하니 조선서는 명나라를
어디로보든지 구원청하는것을 사절할수업는터이라 참판(參判) 강홍립(姜弘
立)을 도원수(都元帥)로하고 김응서를 부원수(副元帥)로하여 평안(平安)
황해(黃海)경리(京畿)충청(忠淸)전라(全羅)의오도(五道)군사를이룽겨 요동
(遼東)으로보내니 김응서는 이때에 평안병사(平安兵使)로잇는터이라 오직
(吳稷)을 우선봉(右先鋒)으로 선천군수(宣川郡守)김응하(金應河)를 좌영장
(左營將)으로하여 이만명의군사를 거나리고 암록강을건너 심양(瀋陽)에드
러가니 명나라군사는 이십사만이울죽인데서 북로군(北路軍)은 이의파하여
관전(寬甸)으로부터 쏘셔와서 남로군(南路軍)과합하니 남로군의장수는 류
정(劉挺)과교일기(喬一琦)였섯다 조선구원병도 명나라군사와합하여 부찰야
(富察野)에서 청나라군사와싸호드니 명나라군사가 참패를당하는중에 명나
라장수 류정과 교일기가 죽고 조선장수는 김응하 오직을비롯하여 리계종

(李繼宗)김요경(金堯卿)의무리가 전망하고 도원수강홍립의군사는 부차(富
車)지방으로 쏘기였는데 이때 청나라의주장(主將)은 청나라 태조(太祖)애
신각라시(愛新覺羅氏)의 노이합저(努爾哈赤)이였다 애신각라시가 요(遼)와
금(金)의 두나라판도안에 허터진부락(部落)을통일(統一)하여 청나라를 새
로건설하니 군사가 강하고 세력이써쳐여 조선의임진란이잇을때에 청태조
노이합저이 조선에사신을 보내여 구원병을 보내겟다고 자원하는것을선조
께서

『오랑캐를 친하였다가 나중에 무슨화나씨치면 성가세다』

하야 대신류성룡을 청나라국경에보내여 청나라변장(邊將)들을 조흔말로효
유(曉諭)하고 사신을후대하야보냈섯다 그후로 청태조는 명나라를휘여잡으
라하야 년래로 명나라를 침노한사담에 명나라는 힘이쓸니여 이번에 조선
으로 구원을청한일이다 부차지방으로 쏘셔온 도원수강홍립이 청태조에게
로 동변을보내여 말하기를

『조선이 청나라와는 아모리하원수지은일이 업는터에 이번 청나라를치라
고 군사를내인것은 한갓 명나라가 구원을청하는것을 거절할수업는사정
이잇서서 부득이(不得已)군사를 내이게된것은 미리 태조께 통지한일이
여니와 청나라는 조선장수와 화친을하다』

하니 강홍립이 미리 청태조에게 동지한일이 있섯다 이뒤로 청태조도 강홍립에게로사신을보내고 강홍립도청태조에게로런해부하를보내여 화천을하게되니 강홍립이 조선서씨날때에 광해주가 강홍립에게밀지(密旨)하기를 식양에가거든 청나라와 명나라와의 형세를보아 청나라가 이길수업슬만치 강하거든 조선군사가 이번움죽인것이 명나라의사정으로보아 엇지할수업시한노릇이라는것을 미리 청태조에게 통지하고 싸호다 패하거든 청태조에게 화천을하게하라한 부탁이잇섯슴으로 강홍립은 이와갓치 청태조에게 화천을청하야 허락을밧고 부하에남은군사오천을 이슬고 청태조에게 항복을하라하는데 부원수김응서는 속모르고

「항복이 될말이나」

고 도원수의명령을 거스리엿다 그러나 도원수강홍립이 이미 결정한일이라 김응서는 독불장군(獨不將軍)으로 강홍립이 청태조에게 항복하뒤로 김응서는 청태조의진중에 가차여잇섯다 청태조는 강홍립 항복을밧고 마음이 푸근하야 포로로잡은 조선사람정응정(鄭應井)의무리 십여인(十餘人)을조선으로돌려보내며 조선왕께 말하기를

「년전에 명나라가 조선으로 구원명을 여러번만 보내주었스니 조선서도 명나라의구원명을보낸것은 사정상 엇지할수업는일이겿고 우리청나라와는

무슨원수가업는터임으로 이번에 포로로잡엇든장수와군사를 노아보내니조선서는 청나라의감사한뜻을 잊지말나」

하얏다 청태조가 조선포로를 모다 노아보낼때에 김응서만 노아보내지아니한것은 청태조와 마부튼 강홍립이 김응서의고집하는것을 미워하야 김응서는 노치안코 청태조의진에 가두어둔다 김응서는 갓치여잇는동안에 청나라진중 내정(內情)을 비밀이 일기(日記)로적어서 조선으로보내려하든것을 강홍립이 밧각하고 청태조에게 고발하야 청태조가 김응서를 죽이엿다 김응서가 죽우뒤에 조선서는 김응서의원동함을알고 조정에서 김응서를신원(伸冤)하야 복관(復官)을하고 양의공(襄毅公)으로 추봉(追封)하얏다

— 김응서의일홈은 식양(瀋陽)에갈때는 김경서(金景瑞)라하얏다 —

新舊書林最新刊書籍目錄

●海上明月	二十五錢	●最新の可唱唱歌	四十錢
●大同江	三十錢	●近代新式唱歌	四十錢
●多情の涙	二十五錢	●如雙美人唱歌	四十錢
●永遠の恋	二十五錢	●東西長恨夢唱歌	四十錢
●黃昏の涙	三十錢	●流行日鮮唱歌	四十錢
●多情の愛人	二十五錢	●近代青春男女唱歌	四十錢
●青春の愛情	三十錢	●東西映畫唱歌	四十錢
●受たてん可い	二十錢	●名曲映畫唱歌	四十錢
●斷髮美人	三十錢	●하모니카唱歌	四十錢
●黃金世界	三十五錢	●戀愛李花運唱歌	四十錢
●黃菊丹楓	三十錢	●戀曲尹心惠唱歌	四十錢
●雪膚花容	三十五錢	●悲曲近代唱歌	四十錢
●月尾島	二十錢	●流行近代唱歌	四十錢
●青春の熱情	三十五錢	●僧房悲曲	一圓三十錢
●探花蜂蝶	三十錢	●平壤愁心歌	三十錢
●錦衣還鄉	十五錢	●新舊雜歌	三十五錢
●錦繡江山	十五錢	●時行雜歌	二十五錢
●處女の魂	十五錢	●流行雜歌	二十五錢
●四溟堂傳	二十五錢	●山中奇緣	二十錢
●薛丁山實記	四十錢	●龍得傳	二十五錢
		●朝鮮李太王實記	二十五錢
		●李舜臣實記	二十五錢

昭和五年十一月三十日 初版發行
 昭和十一年十月廿五日 再版印刷
 昭和十一年十月三十日 發行

【金應瑞實記】
 【定價金三十錢】

著者 盧 益 煥
 發行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五番地

印刷者 林 基 然
 印刷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五番地

發行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五番地
 發賣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五番地

新舊書林

本局 六二一
 電話 〇座京城二八五三番

分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二番地
博文書館

電話 光化門一六九番
 振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